

#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7월 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와  
청년봉사선교회를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 소 라 -

제가 10살 때 저희 집이 수원의 영통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어머니가 먼저 영통성전에서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며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도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거나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러다 혼나면 어쩌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그처럼 저는 저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과 행동이 불량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체벌이 마땅한 것이고 말을 잘 듣고 성실한 학생이 인정받고 예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면 저는 첫째 아들의 심정이 되어 패륜아인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대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되어 청년수련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과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성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여부를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칠 때 저는 둘째 아들이나 다름없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따스한 품에 꼭 안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때 그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교사로 봉사하고 계셨는데 제가 고등부를 졸업할 당시 반주자가 없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서 저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어머니의 강한 요청으로 아동부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신령한 보람과 행복을 알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와 금요기도회 성가대, 청년봉사선교회 등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2016년 겨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이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도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활동 방향이 교회와 다른 점이 많아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2년 가까이 갈팡질팡하며 신앙생활이 침체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어머니와도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생애 처음으로 작정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1시간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것처럼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진리교회를 특별히 택하셔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스스로 판단하느냐?”고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심히 부끄럽고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자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주관하는 153 아카데미와 북한선교회의 대한민국 바로알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욱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머니는 물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청년봉사선교회의 회장으로 교회와 청년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중책을 맡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며 순종하였습니다. 경험이 있기에 저는 청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년간 부족한 중에도 나를 열심히 선교회 청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에베소서 5:8,9) 이는 제가 수시로 묵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은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 구역공과

제2권 (제1단원 :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

## (제4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본문** : 베드로후서 1:12-21
- **요절** :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21)
- **찬송** : 241장(새찬송가 202장), 506장(새찬송가 453장)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에 유익과 향상을 가져오게 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나무가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약하므로 생활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던 단윗처럼 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자의적인 해석을 금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쉬운 말로 쓰여진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려는 유혹에 넘어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본래의 뜻과는 무관한 해석을 하면서도 자기는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1992년 10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풀 결과 멸망과 수치를 자초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 2.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을 재량껏 해석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는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照明)과 인도 아래서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지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성령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3.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푸는데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즉 성경해석의 기본원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뿔뿔’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요 3:14~18).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를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였습니다(갈 3:13).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뿔뿔이 매달린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며,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와 동일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 4. 교회가 전통적으로 공인해 온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께 대하여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신경(信經)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 중에도 경험과 지식, 시대와 환경, 강조점의 차이로 인하여 여러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파간의 견해의 차이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받아들이는 한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며 서로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해 온 성경 해석을 무시하고 유별난 해석을 시도하면서 기성 교회의 성경해석을 비난하는 이단적인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데 목적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경계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며, 사단의 꾀계를 파하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지혜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선교에 적극 동참합시다!”

### 비전 VISION 인터넷과 Mobile을 넘어 A시대로

####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Global선교 사역 감당

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방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내외 동시예배 지원과 선교 지원

#### 성도들의 영적 성장 도모

기도/물질 후원회원 50,000명 이상 확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교회내 IT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전 성전 PC/Network 장비 및 Software 운영 지원



## 주요업무 Key responsibilities

### 정보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교회 각종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 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스마트폰용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 방송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 홍보
- 지성전별 방송통신선교회 운영
- GNTC TV 프로그램 홍보
- 방송통신선교후원회 운영 및 후원자 관리
- 인쇄, 방송, 스마트폰 등 매체별 활용을 통한 전도 사역

### GNTC TV

-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선교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

방송통신선교사역에 뜻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선교 기획
- 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Ai, 네트워크)
- 방송 (카메라, 음향, 영상편집, 기획 등)
- 후원회 관리

[연락처] 031-443-3757

메일 : gntckorea@gmail.com

방문 : 투르스빌딩 7층 정보통신선교회 (각 성전 방송통신선교회)

